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박현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200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4%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흑자는 정부의 규제나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흑자는 반기업 정서로 기업이 투자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 이런 요인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 초기에 노동과 같은 투입요소의 양적 확대 전략에 의존했다. 이후 국내산업은 보다 자본집약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다시 경제의 흐름은 자식집약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이 금융산업이다. 금융산업은 자금 잉여주체인 투자자로부터 자금 부족주체인 수요자, 주로 기

업 등으로의 자금의 이전을 담당한다. 그런데 자금이전 형태가 과거와 같이 단순화 않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예금과 대출이라는 은행 중심의 단순한 금융구도로는 금융산업이 국제경

만, 금융산업은 물적인 생산장비 없이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모두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고 할 때, 그 경쟁력은 바로 미국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내부양성과 외부채용이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경쟁체제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외부채용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금융산업, 미래 성장동력 되려면

쟁에서 제대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도 큰 변화를 겪어 왔지만, 아직 국제경쟁력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다면 금융산업 경쟁력의 요체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업종의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은 생산시설이나 장비 등에 의해 확보되기도 하

그런데 국내 금융회사의 조직문화에서는 아직 외부채용에 의한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 우선 그 동안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논리는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가에게 과격적인 보상을 지급하기 쉽지 않고, 외부에서 채용된 전문가가 조직 내부에 뿌리내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 지점이 전산장비는 물적인 인프라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문화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화가 바뀌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 사이에 우리의 경쟁자들이 더 빨리 앞서나갈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는 당연히 최고경영자의 몫이다. 최고경영자의 굳건한 철학과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변화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최고경영자의 몫이다. 최고경영자가 변화의 주체이자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 금융산업의 실적 호전은 투자를 위한 토대까지 제공하고 있다. 은행은 몇 년간 계속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증권사도 주식 시장 활황에 힘입어 이익규모가 크게 늘었다. 우량한 실적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연결해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의 핵심이 인력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등 규제의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규제개선이 금융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결국 금융산업은 주체들의 혁신적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한나라 호남 구애, 문제는 진정성이다

한나라당이 5일 광주에서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광주·전남지역 1만2천800여명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구애경쟁을 벌인 것이다. 경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광주연설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합동연설회는 뜻거울 분위기였다. 구동체유관은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통로

까지 꽉 찰만한 조만원이었고 500여명은 아예 입장하지 못해 밖에서 지지후보를 응원했다고 한다. 불모지나 다른 없는 광주에서 이처럼 성황을 이뤘으니 한나라당은 고무됐을 것이다.

경선주자들의 구애경쟁도 치열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지역주의 종신'과 '화합의 적임자' 등을 부각시켰다. 특히 광주 영화·화려한 휴가'를 매개로 한나라당 경선주자들에게 의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현실화되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자폭탄이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1년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서민가계는 물론 지방 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아웃은 서민과 지방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5일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98~7.69%다. 이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지난 2005년 8월 말에 비해 대출 최고 금리가 1.8%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만약 특별한 금리 우대를 받지 못한 저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 전에 비해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이 100만원을 넘는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한다. 이런 상

## 無等鼓



## 無等鼓

인질극에는 심리전적 요소가 많다. 인질 살해 또는 석방을 놓고 흥정을 하는 인질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 또는 집단의 심리를 간파하는 심리전적 기술이 필수적이다.

한국인 인질 23명(그중 2명은 이미 사망)을 붙잡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역시 다양한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다. 인질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여성 인질만을 골라 언론과의 통화를 주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질극 초기 하루 간격으로 살해 시한을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조긴장으로 몰아 넣은 것도 마찬가지다.

인질극 자체가 극단의 공포와 패닉을 불러오는 만큼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1996년 폐루 반군이 리마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습격, 700여명을 인질로 잡았다. 4개월을 끈 인질극에는 특공대 투입으로 종결 됐지만 이번에는 인질 범들이 인질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특이 현상이 일어났다. 인질들의 안부변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미사를 주선하는 등 통상적인 인질극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연출된다.

인질극 자체가 심리전적 요소에 좌우된다면, 인질 협상의 성공은 적절한 심리전술의 구사에 달려 있다. 훌륭한 니고시에이터(협상전문가)가 절실한 것도 때문이다. 정부 협상단이 탈레반의 심리전을 훈련하고 인질 조기 석방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칼럼

문성탁



사법시험 합격생 1,000명에 매년 700명 가량의 변호사가 배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얼마 전에는 논란이 많았던 로스쿨 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될 때쯤이면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들은 거의 모든 수입을 경찰이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수사나 재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민사소송대리를 하는 일로 얻어 왔다.

또한, 앞으로도 위의 수입이 변호사

필자가 나름대로 그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모두 자문변호사를 두게 된다.

물론 자문료는 현재 소송에 걸렸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임료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 자문변호사는 업체가 주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서 검토 등 항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제거하게 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달한 에스크로우(esrow)업도 변호사가 종사

## 기고

김병원



질투는 농촌 들·아예 봄에 뿐인 벼농사가, 벌써 이삭이 영그는 소리가 들린다. 농업인들의 낮이은 밭자국 소리에, 하루가 다르게 색깔이 짙어지는 모습에서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운 향수에 젖게 하지만 농업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에 밭걸음을 무겁게 한다.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목표가격(17만830원/80kg)을 정하고 쌀값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변동해야 하는데 금년말로 3년 시한이 만료되고 2008년산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양질제도를 대표했던 추곡

16만1천265(80kg)원으로 5.2%인하가 예상된다.

농업소득 중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3%로써 농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소득작물 중의 하나인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기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더 이상 내려서는 안된다. 현행 목표가격에서도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15%는 지금도 농민부담이 앞으로 매년 생산비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부분 역시 고스란히 농민부담의 뿌이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정할 때 추곡수면의 소득효과까지 포함시켜 수매제 폐지 후에도 수매제가 있을 때 쌀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현행목표가격 17만

83원은 그 이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여기에 쌀목표가격과 쌀소득보전기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쌀산업을 가격지지 정책에서 소득지지 정책으로 전환을 서둘러 왔던 것이다. 제도의 변화 이후 수확기 쌀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완화되면서 농업인들의 고개 매입요구가 예전보다 문화되는 등, 물량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생산방법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쌀가격을 낮출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하락분은 목표가격을 통해서 농가에게 직접보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상당수 농업인의 이해가 수반된 결과라 생각된다.

쌀목표가격 도입 3년째를 지나 새로 목표가격을 정해야 할 시점에서 농민들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 3년동안 고정되었던 쌀목표가격 17만830원(80kg)은 현재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할 경우

〈남평농업조합장〉

## 변호사의 역할 확대

들의 주된 수입원이 될 거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판과 관련된 송무만으로는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은 생존을 위해 지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방향은 기존의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변호사들이 관여했을 때 후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관여하는 쪽이 될 것이다.

(혹자는 변호사 수가 늘어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가 대폭 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민사소송만 놓고 봤을 때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료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위생조건' 수차례 위반 美쇠고기 수입 전면중단해야

할 업무가 된다.

에스кро우는 scroll(두루마리 문서)

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계약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공신력 있는 변호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에서 매수인으로부터는 매매대금을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고 매도인으로부터는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에 응용될 수 있다.

한편, 국도법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부랴부랴 소위 '전관변호사'를 찾아온 비용을 들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건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크다. 〈변호사〉

발등 여섯 차례다.

이미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수출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림부는 이를 적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중단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단호한 조치로 미국의 겹겹 시스템을 국제 수역 사무국이 권고하는 것보다 엄격한 위생 검역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김덕중·광주시 남구청 군현발전 담당

## 화물차 심야 고속도 통행료 할인제도 부작용 많다

화물차의 경우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통행료를 할인 받는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들이 진입로 부근이나 휴게소 등에서, 또는 고속도로 주변 식당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야 운행에 맞추기 위해 잠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차라리 몇 푼을 아끼 보겠다는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심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떨까.

▲이다웅·여수시 평리동

## 光州日報

| 회장 許宰皓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논설실장 金東永 | 편집국장 申港樂 |
| --- | --- | --- | --- |



<tbl\_r cells="4" ix="3" maxcspan="1" maxrspan="1" used